

뉴질랜드에 첫 한국사찰 세웠다



뉴질랜드 최초의 한국사찰 동명사가 건립됐다. 지난 해 11월 14일 준공법회에는 2백여명의 불자들이 참석해 법당을 가득 매웠다.

동명사, 남섬 3천여평부지에 개원 2백여 불자 구심체...주지 성공스님

뉴질랜드에 최초의 한국사찰이 건립됐다. 뉴질랜드 남섬의 중심부인 크라이스처치에 위치한 동명사(東明寺)는 지난 해 11월 14일 멀리 고국을 떠나 이국에서 새 삶을 꾸리고 있는 2백여명의 불자들이 1백여평의 법당을 가득 채운 가운데 준공식을 거행했다. 94년 12월 뉴질랜드 한국불교인회 크라이스처치지부를 설립하며 사찰 건립을 발원한 지 4년여만이었다. 그동안 신만법화보살 집에서 20여 불자가 모여 매주 일요일 정기법회를 봉행하며 법당 갖기를 염원했다.

발원은 컸지만 부지 매입을 위한 기금 마련은 더디기만 했다. 이리던 중 서울 법원사 신도회장이었던 박명삼월 보살이 사찰건립 발원 소식을 듣고 불자기금을 보시함으로써 급진전했다. 크라이스처치 교외에 3천여평의 부지를 매입하고 98년 3월 시공에 들어갔다. 고국의 전통사찰 양식은 아니지만 건물 정면에는 삼보마크(원이삼점)가 선명하다. 현재 동명사에는 주지 겸 지도법사로 성공스님이 주석하면서 매주

일요일 정기법회를 이끈다. 이날 준공법회에서 성공스님은 "동명사가 뉴질랜드 남섬의 한국불자들의 구심점이 되어야 함은 물론 뉴질랜드인들에게 한국불교를 전하는 소임이 주어졌다"며 의무적인 활동을 약속했다. 동명사가 들어선 크라이스처치는 지명 그대로 기독교도들의 도시이다. 게다가 에덴동산이라는 뜻을 지닌 에덴데일(Eddendale)에 한국사찰이 들어선 것이다. 뉴질랜드인들이 가장 많이 신앙하고 있는 종교는 영국의 성공회로 전 인구의 24.3%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뉴질랜드 최대의 도시 오클랜드에 있는 한국불교인회도 사찰 건립을 위한 불사를 진행하고 있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opia.com)



전북불교회관이 마련한 동계수련대회에 참석한 1백30여명의 전주 송천중학교 학생들은 찬불가와 율동을 배우며 즐거워하고 있다.

"다시는 절망 않겠어요"

전주 송천중 갱생 수련대회

순간적인 실수로 범죄를 저지른 결혼가정 청소년들이 갱생보호를 받고 있는 전주 송천중학교(前 전주소년원), 11일부터 13일까지 '함께하는 세상만들기'를 주제로 전북불교회관(원장 화일)이 마련한 동계수련회가 열렸다. 12일 오전 10시, 1백30여 학생들의 예뻐서리가 높은 담과 굳게 닫힌 철창을 넘어 시방세계로 옮겨 퍼졌다. 김민숙 지도교사의 지도로 진행된 율동과 함께하는 찬불가 배우기 첫 시간에는 서로의 눈치를 살피며 어색한 분위기가 엿지던 곧 자신감에 넘쳤다. 김교사가 "한번 자신있게 할 수 있는 학생 있어요"하고 묻자 여기저기서 "저요, 저요..."하며 손을 뻗적 뻗적 든다. 결국 각 반별 대항에 들어갔고 분위기가 무르익자 지도교사는 장기지람을 제안했다. 학생들의 분위기를 살리기 위한 긴급 처방. 학생들은 최신 유행가를 멋드러지게 부르고 경청하는 또래들은 박수를 쳐가며 흥을 돋웠다.

수련회에 참석한 학생들은 노래가락에 흥취 취할 수 있는 이 시간만 큰 청진동자가 됐다. 오후에는 '도전 50곡' '신나게 춤추자' 등의 프로그램으로 심신을 맑게하고, 맛있는 떡볶이로 간식도 했다. 송천중학교 학생들은 13일 수계식에 이르기까지 3일 동안 부처님의 품 안에서 따스함을 만끽했다. 수계식에서 이모 군은 "시련은 있어도 절망은 하지 않을 거예요"라며 사회에 나가면 더 열심히 공부할 것을 다짐했다. 불자학생들의 요청으로 마련된 이 수련회는 딱딱한 강연이나 교리공부보다는 함께 노래하며 발랄한 심성함양을, 참선, 독경, 수계식을 통해 자신의 죄업을 참회하는 시간이 됐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 지도교사들의 전언이다.

특히 불자 학생들은 수련대회를 계기로 지도법사스님과 교사들 간의 교류도 활발하다. 수련회 첫날 지도법사스님이 5통의 편지를 받을 정도. 이처럼 학생들은 자신의 각오와 고민 등을 담은 편지도 보내고, 스님들은 교박 교박 답장을 해주는 등 자비로운 불성도 싹트고 있다. 지도법사 화일스님은 "불교적 인생관을 심어줘 재범을 하지 않도록 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중근 기자(gamja@buddhopia.com)

종교인 평화회의 지도자 신년하례

부산종교인평화회의(공동대표 정각스님)는 7일 삼상사 지관전에서 부산 종교지도자 신년 하례식을 가졌다. 불교 기독교 천주교 유교 원불교 천도교 등의 종교지도자들이 함께 모인 이날 김혜진 원불교 공동대표는 기원문을 통해 "종교간의 화합과 인류공동체를 위해 종교를 뛰어넘어 함께 할 수 있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또 김우신 유교 공동대표는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사소한 차이를 뛰어넘어 연대와 관계를 통해 문화를 형성해 가자"는 내용의 세계종교회의의 지구운리 선언문을 낭독했다. 이날 하례식에는 새로 공동대표로 추대된 덕수 삼상사 주지스님을 비롯 안상수 부산시장, 삼일대표 정영문 목사, 천주교의 김성수 신부 등 종교지도자 2백여명이 함께 했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opia.com)

충주 청룡사지 복원 추진

고려말 중원 대표사찰...국보·보물 많아

여말선초 중원지방의 대표적 사찰이었던 충주 청룡사지 복원이 추진된다. 청룡사지는 유적발굴조사가 끝난 데 이어 진입로 1.5km 포장공사와 5백평규모의 주차장이 완공된 상태로 국유림 불하신청과 건물복원공사가 진행중이다. 청룡사지복원추진위원장인 현우스님(대한법화종 재부부장)은 청룡사가 도재양성도장으로 거느리도록 불자님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청룡사지 불하신청에는 국유림불하금과 대응전 건립에 총 4억5천여만원의 예산이 필요한 상

태여서 뜻을 같이하거나 원력있는 불자들의 불사 동참을 바라고 있다. 문의 (0441) 42-8856. 청룡사지는 전통사찰 658호로 지정돼 있으며 보각국사 정혜원공탑이 국보 197호로, 사자석등이 보물 656호, 보각국사탑비가 보물 658호로 각각 지정돼 있다. 이밖에 청룡사지유적비와 적운당 사리탑이 현존한다. 태조 1년 보각국사가 입적하자 태조는 명복을 빌기 위해 청룡사를 크게 중창했다. 보각국사(1320~1392)는 고려말 선사로 나옹선사의 신포를 받았으며 고려말 공민왕 우왕 공양왕은 스님



고려말 중원지방의 대표적 사찰인 청룡사지의 보각국사 정혜원공탑과 탑비, 사자석등은 뛰어난 조형미를 보이며 국보와 보물로 지정돼 있다.

을 왕사와 국사로 책봉하고 원찰들을 주석케 했으나 보각국사는 이모든 것을 거부하며 전국사찰을 편력, 선화(禪會)를 크게 여는 등 불교발전에 진력했다. 현재의 청룡사는 조선말 판서 민

대룡이 소실 모를 쓰려고 짚을 불살라 사지로 내려오던 것을 현우스님이 옛임자의 자리에 법당건물을 짓고 불하신청에 주력하고 있다. 김원우 기자 (wkwim@buddhopia.com)

동학사 승가대 학인 50명 졸업

83년만에 최다인원 배출



한국불교 최초의 강 목적으로 따라가 보다는 어디서 살더라도 결모습 보다 부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우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화엄반 반장 묘관·명오스님은 "63년 첫 졸업생이 배출된 이후 가장 많은 학인들이 함께 타마했다는 데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기쁨을 감추지 않았다. 동학사승가대학은 1816년 금강산 유점사 당시에 율봉문인인 만화스님이 대중전과 큰방을 건립해 강원을 설립한 이래 초대 강주로 김봉스님이 추대됐고, 1963년 경봉스님 강주시절에 첫 졸업생을 배출했다. 위영란 기자 (yryui@buddhopia.com)

학인들 중 가장 많은 숫자가 졸업하니 더욱 보람이 있다"고 전제하고, "학인들이 남이 가는 길을 맹목적으로 따라가 보다는 어디서 살더라도 결모습 보다 부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우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화엄반 반장 묘관·명오스님은 "63년 첫 졸업생이 배출된 이후 가장 많은 학인들이 함께 타마했다는 데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기쁨을 감추지 않았다. 동학사승가대학은 1816년 금강산 유점사 당시에 율봉문인인 만화스님이 대중전과 큰방을 건립해 강원을 설립한 이래 초대 강주로 김봉스님이 추대됐고, 1963년 경봉스님 강주시절에 첫 졸업생을 배출했다. 위영란 기자 (yryui@buddhopia.com)

천원으로 청소년 도와 전주 '천천클럽' 발족

우리는선우 전주지회(지회장 오종근·호원대학교 교수)가 지역내 불우청소년을 돕기 위한 '천천클럽(千千 club)'을 운영한다. 우리는선우 전주지회는 23일 정진법회에서 천천클럽 발족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천천클럽은 헌명이 한달에 1천원씩을 1년 단위로 보시하는 사회사업이다. 후원금은 전주소년원, 지역내 소년소녀가장 등에게 지원되며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인으로 설립한다는 방침이다. 김중근 기자

전주 의사불자회 결성

장학사업·무료 의료봉사 활동등 전개

전북 전주에 의사불자회가 결성된다. (가칭)전주 의사불자회는 22일 첫 모임을 갖고 사업 등에 대해 논의한다. 전주 의사불자회는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을 주요사업으로 꼽고 있다. 전주 의사불자회 준비위원회는 "교계가 그동안 인재불사사업을 제대로 펼치지 못해 현재 어린이법회 지도자에서부터 각종 불회지도자까지 인재부재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장학사업을 주요사업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주의사불자회 회원을 중심으로 매월 회비를 적립해 장학기금을 마련, 전주 지역내 예비 불교지도자들에게 지원, 인재양성을 위한 단초를 제공

한다는 것이다. 이밖에 의사불자회는 정기법회, 무료의료봉사 등의 신행 및 사회복지사업도 병행해 실시할 계획. 현재 전주 의사불자회는 남궁정형의과, 이동호내과, 신덕원, 조정호산부인과, 박만춘내과 등 10여개 개인병원이 참여하고 있다. 전주 의사불자회 창립을 추진해 온 남궁정형의과 남궁 선 원장은 "전주지역내 의사불자들이 최대한 참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의사불자들이 지역내에서 인지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만큼 불자회가 창립되면 전주 불교 활성화를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김중근 기자

27일, 선원사 복원기도 700일 기념법회

인연 강화 선원사(주지 성원)는 27일 선원사 복원을 위한 천일 지장기도 700일을 맞아 큰스님 초창대법회 및 선원사 예술제를 봉행한다. 오전 10시 30분 선원사에서 열리는 큰스님 초창대법회에는 일본 고려사 관장 태연스님이 국난극복을 위한 설법을 한다. 이어 오후 3시에는 강화문예회관 소강당에서 '마음을 나누어'란 주제로 예술제를 개최한다. 예술제에서는 사물놀이, 임춘희씨 등의 지진춤, 풍토 등이 진행된다. 김중근 기자

정화양로원 위문 기장사암연합회

부산 기장군사암연합회(회장 정암·해동용궁사 주지)는 구암 16일 복구 화병동 정화양로원을 방문 노인들을 위로했다. 연합회 회원스님들은 정화양로원을 찾아 쌀 4가마, 라면 18박스, 과일, 향 등을 전달했다. 천미희 기자

불교계 유일의 정보잡지

불교와 문화

BUDDHISM & CULTURE

1999년 겨울 호 제8호(통권 제28호)

지상종계	해거스님과 떠나는 불교전리품 1 목조선(默照禪)과 함께하는 참선여행	산사古蹟	한글경전번역을 위한 화신보살, 운허 큰스님
문화사평	일본 대중문화 개방 불교 문화적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인터넷불교	불교계 정보화 이렇게 해야 한다 한국 불교계의 인터넷 속제
불교계인단	불교계 정례회의의 현주소 진단한다 산 사람보다 죽은 사람 위한 무덤의 나라 불교계 강대문화 정착을 위한 과제 불교계 주요 남교시설 및 이용방법	불교문화의향	책으로 만나는 불화 불교미술의 정수, 한국의 불화(佛畵)
특집	현대인의 수행법 - 간화선과 위빠사나를 비교한다 간화선(禪)이란 무엇인가 현대인에게 선이 주는 교훈 선은 대야상 불교의 전유물이 아니다 왜 위빠사나 수행법을 찾는가 「위빠사나를 돕는 이음요인」으로 본 위빠사나 참선수행법 현정달랑 생활 속의 선을 찾아서	칼럼	사건으로 보는 성모기행 ⑨ / 99년 건축문화의 해 기념 건축미를 통해 본 가람건축의 미학
특별기획	세계의 사상가와 불교 ⑩ 동서양 사상의 융합을 위한 옥마비오 박사 옥마비오 박사의 불교사상 옥마비오 박사의 지공세계 및 주요작품	생태탐사기	남한산성과 아홉 줄 주변의 자연생태
		교전산책	백파 스님과 추사 김정희의 對論 ① 백파 스님에게 주다 - 편지 ①②③·김정희
		발굴	홍인표 거사의 염불왕생법 (원결편)
		불교관계저 총합색인	
		불교계 주요일지(1998.9 - 1998.12)	
		특자의 창	인간의 사유방식은 연(緣)에서 비롯된다
		풍은백 읽기	

불교의 문화 121-050 서울시 마포구 마포동 140 편집실(02)719-2606, 정기구독 신청 문의 Tel. 02-719-1855, Fax. 02-719-5052

募 綠 文

서기 527년 신라말 경주에서 우리나라 불교사에서 가장 높이 평가되어야 하는 성스러운 종교적 사건이 있었으니 바로 이차돈 성사님의 순교입니다. 우리 민족 최초의 순교자이신 이차돈 성사님의 진리를 찾으면서, 진리를 지키시며, 진리가 되는 생활을 보여주신 이 역사적인 순교가 밀받침이 되지 못하였다면 어찌 세계의 자랑거리인 신라불교가 태어날 수 있었으며 신라 불교가 찬란한 빛을 발하지 못하였던들, 어찌 오늘날 우리 한민족의 자랑스런 역사가 있었으리요. 이러한 거룩한 이차돈 성사님의 순교의 정신을 기념하기 위하여 서기 817년 신라시대에 추모비가 건립되어 현재 경주 국립박물관에 소장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차돈 성사님께서 순교하신지 어언 1470년이 흘러 신라 최초의 사찰인 흥륜사 경내에 이제 다시 그 순교정신을 이어 받아 "진리"를 찾고자 하는 사부대중들이 뜻을 모아 기념 추모비를 건립하고자 하오니 인연(因緣)있는 분들의 많은 동참을 기대합니다.

정성을 보내주실 곳 (동참금은 각자 정성으로)
 수취국 700047-0333069 박성일(흥륜사 주지)
 농협 721015-52-239100 박성일(흥륜사 주지)

■ 비문 : 일타큰스님 찬 ■ 글 : 덕봉선생

흥륜사 이차돈 성사 추모비 건립위원회

경주시 사정동 281번지 흥륜사내
 TEL 0561)772-4834, 43-3776

대한불교조계종 흥륜사 주지 해해 합장